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July

2018년
7월 다섯째주



전남도내 가공식품 중국 온라인 직거래 수출 박차

주간 날씨정보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시설신축.. 본격적
연구개시

정책동향

전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60억 추가 투입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버섯육종교실, 30일부터
신청하세요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2~24도, 최고기온 : 29~32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4~10mm)보다 적겠음
- ▶ 낮 최고기온이 35℃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한육우 사육 및 가격전망
- ▶ 돼지 사육 및 가격전망
- ▶ 육계 사육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전남도 원예 농산물 말레이시아 수출 길 열려...
- ▶ 전남도내 가공식품 중국 온라인 직거래 수출 박차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4

- ▶ 전남농업기술원,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시설신축.. 본격적 연구개시
- ▶ 우리 쌀 100% 로 만든 순 식물성 요구르트 개발
- ▶ 여름철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약초 3총사
- ▶ 시설재배지 작물 스트레스 미생물로 푼다
- ▶ 배추에서 가뭄에 강한 유전자 발굴
- ▶ 최대 폭염에 사과 과원 관리 비상
- ▶ 이제 폭염엔 닭도 시원한 물 마셔요

6 정책 동향 22

- ▶ 전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60억 추가 투입
- ▶ 농식품부,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5

- ▶ 나주시, 축산농가에 폭염 예방 시설 긴급지원
- ▶ 광양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효자노릇 토크
- ▶ 곡성군, 농산물 사게 하는 세일즈 스킬 교육생 모집
- ▶ 신안군, 폭염대비 농작물관리 및 농작업 안전사고 주의 당부

8 해외 농업정보 29

- ▶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인도 유기농 시장
- ▶ 새로운 천연 감미료 성분 개발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7.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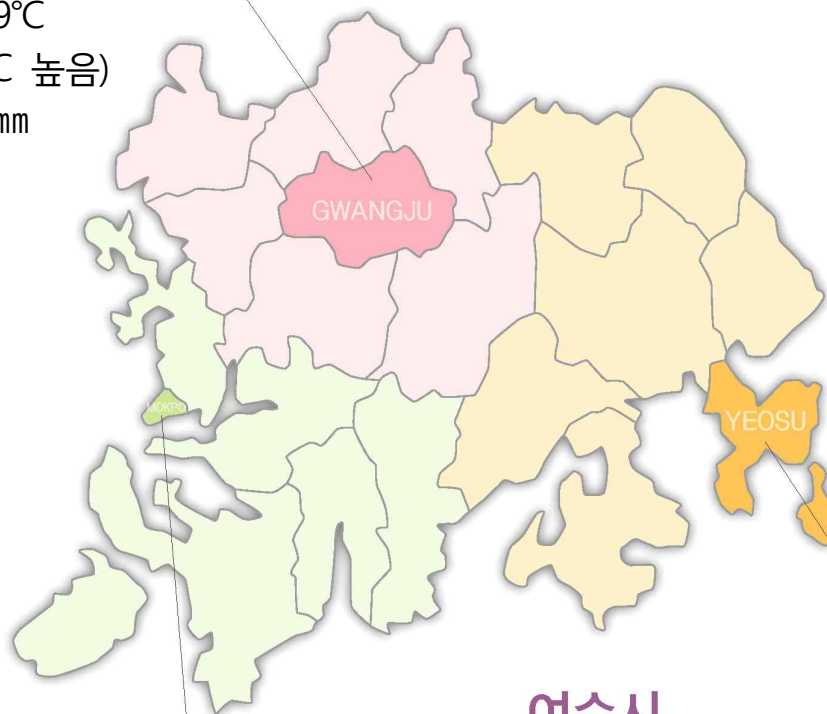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3

- ▶ 버섯육종교실, 30일부터 신청하세요
- ▶ 올 여름엔 농촌에서 더위 잊어보세요
- ▶ 8월, 여름휴가 떠나기 좋은 농촌여행마을 5선
-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7.3℃
(평년대비 2.5℃ 높음)
- 최고기온 : 31.9℃
(평년대비 2.9℃ 높음)
- 최저기온 : 23.9℃
(평년대비 1.1℃ 높음)
- 강 수 량 : 7.2mm



목포시

- 평균기온 : 26.9℃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30.9℃
(평년대비 1.7℃ 높음)
- 최저기온 : 24.0℃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4.0mm

여수시

- 평균기온 : 26.1℃
(평년대비 2.6℃ 높음)
- 최고기온 : 29.3℃
(평년대비 3.2℃ 높음)
- 최저기온 : 23.8℃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5.5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한육우 사육 및 가격전망

8~9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상승 전망

- 8~9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상승 전망
- 작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선물세트 작업은 앞당겨져 시작될 것으로 예상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2.0% 내외 증가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1세 이상 사육 마릿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동기보다 2.0% 내외 증가 전망
- 2017년 1세 미만 송아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1~2세가 되는 2018년 9월의 1~2세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 예상
- 2015년 3분기(6~8월) 정액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금년 9월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돼지 사육 및 가격전망

8월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하락 전망

- 6월 사육 마릿수는 모돈 수 증가로 자돈 생산이 늘어 전년 동월보다 1.0% 증가한 1,130만 마리
- 8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보다 2.3% 증가한 7만 2천 톤 전망

- 8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미국, EU 등 주요 수출국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3만 톤 내외 전망
- 8월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하락한 탕박(제주 제외) 기준 kg 당 평균 4,900~5,200원 전망
- 단, 폭염이 지속될 경우 돼지고기 생산량 전망치보다 소폭 감소 전망



육계 사육 및 가격전망

8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1,400~1,600원/kg 전망

- 6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대비 9.2% 감소한 25,239톤
- 6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3.7% 감소한 509만 마리,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7.9% 감소한 804만 마리 추정
- 종계 성계 감소하나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 증가
- 7월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3.8% 증가 전망
- 도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증체저하가 예상되어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1,400~1,600원/kg 전망, 폭염 피해 지속 시 가격은 전망치보다 상승할 듯
- 환우계군 생산 가담과 종란 재고 증가로 하반기 병아리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 병아리 생산 증가로 도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9~10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7. 30.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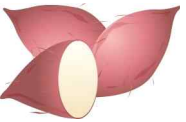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0kg	45,920	45,980	↑	4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090	32,100	39,533	↑	16.2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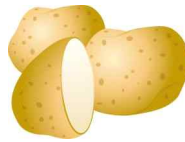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35kg	179,000	180,800	↑	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600	171,800	155,600	↑	15.0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kg	45,600	44,800	↑	3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800	34,300	31,870	↑	43.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0kg	33,600	29,000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300	33,550	22,593	↑	48.7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kg	15,200	17,00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400	16,300	13,507	↑	12.5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8kg	14,200	9,000	↑	17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33	5,260	4,951	↑	186.8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0개	37,667	44,333	↓	5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833	81,833	59,915	↓	37.1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0개	9,132	9,400	↓	6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00	24,700	17,877	↓	48.9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60kg	1,186,600	1,180,000	↑	7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0,000	680,000	721,000	↑	64.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kg	54,600	64,0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250	50,900	43,907	↑	24.4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0kg	125,000	125,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0kg	13,320	13,800	↓	4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00	25,050	18,383	↓	27.5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0kg	42,400	43,060	↑	4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800	29,000	32,233	↑	31.5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kg	1,580	1,580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30	1,635	1,458	↑	8.4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5kg	14,800	14,600	↓	3.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615	15,250	15,220	↓	2.8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개	20,000	19,200	↑	2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900	16,450	15,303	↑	30.7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kg	23,600	25,600	↑	4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900	16,300	18,047	↑	30.8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5kg	15,200	17,00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400	16,300	13,507	↑	12.5

과일류

사과(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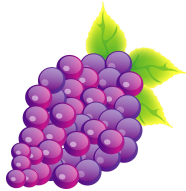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kg	37,400	37,600	↓ 1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200	41,850	44,628	↓ 16.2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5kg	36,200	34,600	↓ 3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850	57,900	57,033	↓ 36.5

포도(거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kg	13,400	13,600	↓ 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00	14,350	13,087	↑ 2.4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0g	7,985	8,103	↑ 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17	7,911	7,118	↑ 12.2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kg	4,943	4,851	↓ 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61	5,146	5,324	↓ 7.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30kg	497,600	497,6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518,600	535,333	↓ 7.0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kg	14,400	14,800	↑ 2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350	11,200	13,097	↑ 9.9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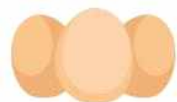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2kg	7,000	7,500	-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982	7,000	7,067	↓ 0.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00g	2,276	2,302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76	2,252	2,084	↑ 9.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30개	4,501	4,283	↓ 4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50	7,710	5,952	↓ 24.4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30)	1주일전 (7/23)	전년대비	
1L	2,526	2,528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25	2,528	2,530	↓	0.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7. 30. 기준 / 단위 : 천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10	5,560	5,271	↓ 0.9	↑ 4.5
	거세	6,799	6,679	6,511	↑ 1.8	↑ 4.4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048	3,103	3,056	↓ 1.8	↓ 0.3
	수	3,951	4,039	3,880	↓ 2.2	↑ 1.8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39	3,244	2,6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9	↑ 27.1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4	237	14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5	↑ 50.3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99	458	41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9	↓ 4.8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820	1,583	1,63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5.0	↑ 11.7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05	847	1,86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8	↓ 51.4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67	2,147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0.2	↓ 11.2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도 원예 농산물 말레이시아 수출 길 열려...

- 딸기, 양배추, 포도 등 1차 50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강진의 고마미지농업회사법인(대표 김재용),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입 업체인 하이난엔터프라이즈(Hainan Enterprise SDN)사와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원예 농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협약으로 농업기술원은 수출 원예 농산물 품목 발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도내 품목별 주요 주산단지를 연계하여 안정적 물량확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고마미지농업회사법인은 계약재배와 유통, 판매를 통해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말레이시아의 하이난 엔터프라이즈 사에 공급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우수 농산물 홍보를 맡기로 상호 협약 하였다.
-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입 업체인 하이난엔터프라이즈 사는 금년 8월부터 1차로 건조딸기, 포도, 양배추, 신선딸기 등 50만 달러의 전남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부터 연근, 복숭아, 멜론 등을 추가로 150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내 가공식품 중국 온라인 직거래 수출 박차

- 중국 웨이디엔·JHE 글로벌 유통업체 연계, 담양한과 등 15개 품목 수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7일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 전문업체인 웨이디엔과 JHE 글로벌 기업을 통해 도내 청년벤처농가와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지역특화 가공식품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5월 29일 중국 웨이디엔과 JHE 글로벌 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지역특화 가공식품 중국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상담회에 전시한 가공식품 중에서 라이브 모바일 생방송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한 담양한과 명진식품 등 5개 경영체가 생산한 하루영양바 등 15개 품목을 이번에 수출하게 되었다.
- 이번에 수출하게 되는 가공품은 담양한과 명진식품의 한과종합선물세트, 하루영양바, 꿀견빵 등 4품목, 보성제다의 차세트, 녹차, 홍차 3품목, 고흥 에덴식품의 유자·블루베리·석류·딸기초코크런치 4품목, 고흥 엔자임팜의 유자·무화과·고구마잼 3품목, 영광 아름답게 그린배의 꼬샤꼬샤배즙 이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중국 수출업체와 연계하여 도내 청년벤처농 및 소규모 가공업체(경영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이 중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공제품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전남농업기술원,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시설신축.. 본격적 연구개시

- 전라남도과 한전공동으로 태양광을 시설원에 에너지원으로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태양광 발전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 연구시설을 신축 완공하여 7월 24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에 완공된 에너지 자립형 연구시설은 지난 2016년에 한국전력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화석에너지 제로(zero)를 목표로 하는 첨단 연구시설이다.
- 현재 겨울철 시설원예농사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난방비가 생산비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난방비는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 이번에 완공된 연구시설은 기존의 화석에너지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형 시설 모델로 4차 산업 혁명 대비 미래형 농업 연구 시설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번 신재생 활용 에너지 자립형 연구시설은 태양광 발전 패널, 히트펌프,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의 에너지 시설과,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미래형 농업시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향후 이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작목별로 계절에 따른 에너지 발전 및 저장설비 활용방법, 적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모델의 확산과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우리 쌀 100% 로 만든 순 식물성 요구르트 개발

- 라이신·가바·식이섬유 많고 항균·항산화·항염증 활성 높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쌀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으로 영양과 기능성을 갖춘 한국형 순 식물성 쌀 요구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쌀 요구르트는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아침 대용식, 유아·고령 친화식, 우유 소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식 선호 소비자에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을 이용한 유산균 발효 연구는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 JSA22를 우리 쌀에 접목해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냈으며, 100% 순 식물성 요구르트라는 데 의의가 있다.
- 쌀 요구르트는 일반 유산균 발효물에 비해 총 아미노산 함량이 1.5배(410.2mg/100g) 이상 많다. 쌀에 부족한 라이신 함량은 12배(22.0mg/100g), 가바(GABA) 함량은 4.6배(82.7mg/100g) 높으며,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7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정쌀 조은흑미로 만든 요구르트는 항산화활성이 37배, 항염증활성은 4배 높았다. 또한, 항균활성이 8%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식이섬유도 100g당 795mg을 포함해 일반 유산균 발효물의 361mg보다 2.2배 많았다.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 활동은 물론, 장내 미생물균총 개선으로 장 건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쌀 요구르트 1회분의 제조에는 약 20g의 쌀이 필요해 고부가 발효 식품 개발과 함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번 쌀 요구르트 개발은 토종 유산균에 쌀을 더해 유용 성분을 강화한 한국형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연구의 중요한 결과다. 『쌀 배아를 포함하는 요구르트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10-2017-0122297) 했으며, 산업화를 앞두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여름철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약초 3총사

- 울무·단삼·복분자... 차나 음료로 마시면 체력 보강에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울무와 단삼, 복분자를 소개했다.
- 덥고 습한 여름에는 관절통 등 각종 질병이 생기고 만성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몸에 들어오는 습기를 없애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먹거리를 먹어 주면 좋다.
- 울무는 이뇨 작용을 도와 몸 속의 습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섬유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 증진 효과도 보고돼 있다.
- 한방에서는 울무를 의이인(義苡人)이라 부르며, 몸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부종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울무의 수용성 아미노산을 흡수하려면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물 2리터에 살짝 볶은 씨 90g 정도를 넣고 끓이면 된다.
- 단삼(丹參)은 이름 그대로 뿌리가 붉은 색을 띠는 약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등의 약리작용도 보고돼 있다.
- 물 2리터에 단삼 뿌리 약 20g을 넣고 끓인 물을 마신다.
- 복분자는 여름철에 먹으면 기력을 보충할 수 있고 피로감 개선에도 탁월하다. 피부 미용 효과도 있어 더위에 지친 피부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복분자 열매는 여름에 수확해 생으로 먹거나 원액 또는 농축액을 구입해 기호에 따라 물에 타서 음료로 먹으면 좋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울무 씨	단삼 뿌리	복분자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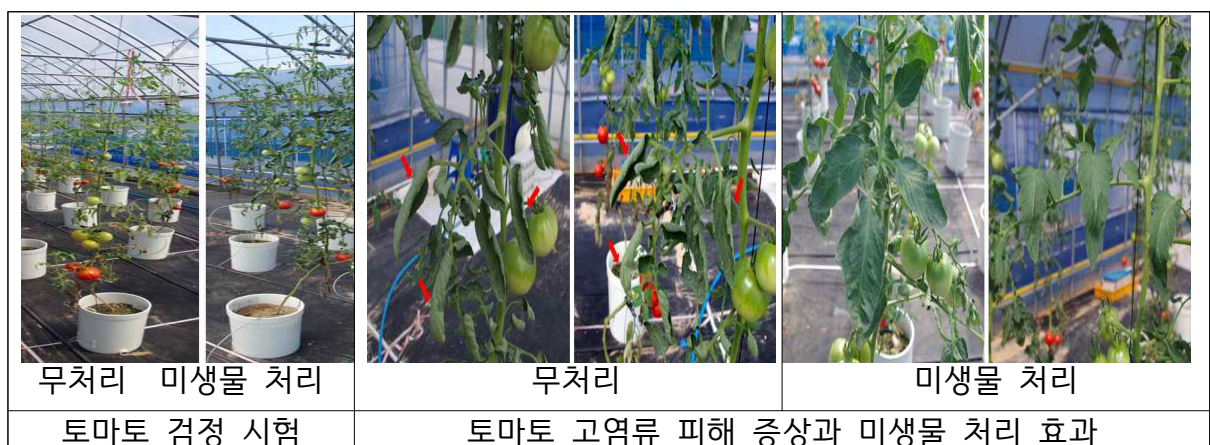
○ 시설재배지 작물 스트레스 미생물로 푼다

- 미생물 2종 개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작물 생산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시설재배지에서 작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미생물 2종을 개발했다.
- 시설재배지 작물은 비료 과다 사용과 집약 재배로 인한 고염류와 병해충,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아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 이번에 개발한 PMC12 균주는 토마토 종자 내부에서 분리한 배리오보랙스 속의 미생물이다. 이 균주는 시설재배지 작물이 겪는 저온, 건조 및 풋마름병 등 생물적 스트레스와 비생물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생물을 처리한 후 저온(10℃)에서 4일간 스트레스를 준 결과,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토마토에 비해 피해가 38% 줄었다.
- 토마토에 미생물을 처리한 후 15일간 물을 주지 않은 토마토에 다시 물을 주었을 때,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토마토에 비해 피해가 59.4% 감소했다.
- 이 미생물을 처리하면 풋마름병에 대해서 38.9%의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미생물은 식물호르몬과 ACC (1-aminocyclopropane-1-carboxylate) 탈아민효소 생성을 촉진하고 식물호르몬을 분비하게 도와 작물의 저온, 건조, 병원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편, 토마토에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이 미생물을 뿌리에 뿌렸을 때 지상부 생체중이 32.3% 증가했다.

- 또 다른 미생물 H20-5균주는 토마토 뿌리 주위에서 분리한 바실러스 메소나에이다. 이 균주는 시설재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염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미생물을 토마토 어린 묘의 뿌리에 뿌렸을 때 염류 피해가 18.2% 줄었다.
- 고염류 조건의 토마토에 이 미생물을 처리하면 프롤린(proline)은 14.8%, 칼슘 이온은 26.0% 증가하고, 나트륨 이온은 47.7% 감소됐다. 이런 변화는 세포가 삼투압 조절을 잘 하게 도와주고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어 높은 염류에서도 작물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미생물 2종에 대해 특허출원(10-2017-0149901, 10-2018-0042270)을 완료했다.
- 현재 이 미생물을 활용해 농가 현장 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로 개발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배추에서 가뭄에 강한 유전자 발굴

- 양배추 등 배추과 채소에도 적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뭄 저항성 배추 개발에 필수적인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채소 작물을 육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이번 연구를 통해 배추에 28개의 SR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 유전자들이 가뭄과 저온, 고온, 고염 등의 상황에서 식물체 내에서 반응하는 패턴을 분석했다.
- SR 단백질은 아미노산인 세린(serine)과 아르기닌(arginine)이 풍부한 RNA-결합 단백질로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조절하고 가뭄 등의 환경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 그동안 식물에서 여러 환경 스트레스와 호르몬에 의해 SR 단백질의 일부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된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가뭄 저항성 기능을 밝힌 보고는 아직 없다.
- 발굴 유전자로 가뭄 저항성 채소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R 단백질에서 가뭄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BrSR45a를 후보 유전자로 선택해 애기장대에 형질 전환해 검정했다.
- 그 결과, 가뭄 스트레스에 대해 일반 애기장대에 비해 매우 높은 저항성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Plant Biology 8월호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 (10-2017-0148345)을 완료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최대 폭염에 사과 과원 관리 비상

- 미세살수 장치 가동해 적절한 물 공급으로 피해 줄여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유례없이 긴 폭염으로 사과 열매가 잘 자라지 않고 햇빛 데임 발생도 늘어 꽃눈분화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6월 21일 이후 기온은 평년보다 1.6℃ 높고, 7월 중순(7. 11.~7. 20.) 에는 평년보다 3.5℃ 높았다. 반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111.1mm 적어 평년 대비 2.5% 수준이다.
- 올해는 봄철 저온 피해로 인해 열매 달림이 지난해보다 15% 적었음에도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과실 비대(커짐)가 지난해보다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폭염은 열매가 늦게 커지는 것은 물론, 햇빛 데임(일소)이 크게 늘어 밀 증상과 착색 불량, 과실의 분질화(과실 내 수분이 없어지고 딱딱해지는 현상) 발생, 산미가 떨어지고 저장성도 낮아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사과나무의 호흡량이 많아져 광합성 결과 생성된 동화산물의 소비가 많아 꽃눈 발달도 저해된다.
- 고온 피해를 예방하고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을 철저히 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폭염이 장기화하면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햇빛 데임 피해도 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고, 과수원 토양에 풀을 재배하는 초생재배를 하면 온도 상승을 막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 미세살수는 대기 온도가 31℃ 이상일 때 실시한다. 이 때, 5분간 물을 주고 1분간 멈춰가며 31℃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반복한다. 중간에 중단하면 외려 햇빛 데임 피해가 증가하므로 주의한다.
- 병든 열매가 열린 나무에 미세살수하면 오히려 병 발생을 늘리므로 모두 따낸 다음 물을 준다. 폭염이 지속될 때는 여름 전정(가지치기)을 과하게 하지 않고 수확기에 접어든 조생종은 일찍 수확해 피해를 줄인다. 전정 시, 웃자란 가지를 과하게 자르지 않고 강한 빛을 가리도록 유인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열매는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❶ 이제 폭염엔 닭도 시원한 물 마셔요

- 육계사용 냉·음용수 기술 개발로 폐사를 낮춰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한 『육계사용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이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 폐사를 예방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다른 가축에 비해 체온 조절이 어렵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고온 스트레스가 커 사료 섭취율이 적어 체중이 줄고 폐사율이 느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육계사용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을 개발했다. 닭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함으로써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기술로, 닭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육계 사육 농가에 시범 설치했다.
- 이 기술은 히트 펌프로 냉수를 생산, 음용수 탱크에 저장한 후 급수 배관 및 니플을 통해 사육 주령에 알맞은 온도로 자동 공급한다. 한여름에도 기존(평균 수온 24℃)에 비해 9℃ 낮은 15℃ 정도의 음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다.
- 이 시스템으로 닭에게 물을 공급한 결과, 기존의 사육 방식보다 사료 요구율이 높아져 4주령에서 육계의 마리 당 중량이 평균 103g(중량 392 → 495g/마리) 늘었다. 또, 닭의 폐사율을 84% 줄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 냉·음용수 공급으로 닭의 고온 스트레스가 줄면서, 혈액 내 알부민 수치는 9.5% 올랐고, AST는 3.1% 줄어드는 등 간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질의 명도가 2.5% 증가해 육계의 품질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육계사용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의 특허를 출원, 등록을 마치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으며,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닭 사육농가에 설치, 운영 중이다.
- 올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지난 6월에 4곳, 11농가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 효과 검증 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전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 60억 추가 투입

- 24일 예비비 긴급 투입해 관정스트레스 완화제 등 지원 대상 확대 -

- 전라남도는 가축 폭염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4일 긴급하게 도 예비비 12억 원을 포함한 60억 원의 가축 폭염 예방 대책비를 추가로 확보해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액은 1차 대책비 30억 원을 포함해 90억 원이다.
- 전남지역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총 220호에 343천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은 16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축종별로는 닭 108호 30만 8천 마리, 오리 22호 3만 4천 마리, 돼지 90호 1천 155마리다. 전국적으로는 125만 마리가 폐사했다.
- 이번 추가 지원 대상 농가는 당초 중소 규모 이하 농가만 지원(닭오리는 전 농가 지원)하던 것을 대규모 미만 농가(한우젓소 100마리, 돼지 4천 마리, 꿀벌 300마리 등)로 확대했다. 닭오리 농가의 경우 기존에 지원 품목인 스프링클러, 안개분무, 환풍기, 열차단 페인트, 차광막에 더해 관정, 쿨링패드, 스트레스 완화제까지 확대 지원한다.
- 전라남도는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폭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 24일 시군 축산관련 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1차로 지원한 30억에 대해 시군비 확보, 대상자 선정, 폭염 예방 장치 설치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2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 농가들이 빨리 지원받도록 긴급한 추진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농식품부,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유관기관 합동 수급안정 T/F 가동, 수급조절물량 출하 조절 등 -

- 폭염으로 무·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외 과일·과채,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 농축산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 농식품부는 폭염 장기화로 농가피해가 커지고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6. 5.~10. 15.)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 T/F도 가동하고 있다.
-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8개 반, 84명)을 추가 편성하여 채소·가축 등의 고온·다습에 따른 병충해 발생상황 등 진단과 처방, 생육관리 기술지도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협, 생산자단체, 일선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온·폭염 대비 가축·농작물 관리 요령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폭염 장기화 전망에 따라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밭 중심으로 관정 개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급수 대책비용도 긴급 지원할 계획(7월 중)이다.
- 지자체별 토양 수분함량, 무강우 일수, 밭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뭄 예산(30억 원 규모)을 지자체별로 포괄 배정하여 지자체가 시급한 부분에 우선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은 선제적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 배추·무 등 밥상물가와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조절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판매도 실시할 계획이다.
- (노지채소) 배추는 1일 100~150톤의 비축물량(총 6천 톤 보유)을 당분간 집중 방출하고, 향후 수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 (과채)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토마토는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공급물량 부족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과일)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농협 계통 매장, 공영 홈쇼핑 등을 활용한 알뜰과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자조금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출하를 조절할 계획이다.
- (축산물) 돼지고기는 뒷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 캠페인(~8월)과 한돈물 바캉스 기획전 할인판매(20%↓, 7. 16. ~ 8. 17.), 계란은 농협지역 본부 소비촉진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 등을 통해 품목별 출하 및 가격동향(전일·전주 대비 가격 변화 추이 등), 할인판매 매장, 직거래 장터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목의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나주시, 축산농가에 폭염 예방 시설 긴급지원

- 대형 선풍기, 스프링클러, 열 차단 페인트 등 축사 내부 온도 저감 장비 지원 -

-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닭, 오리 사육지인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예방 시설·장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 22일 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34개 축산 농가에서 3만 9,245마리의 닭, 오리, 돼지 등이 폭염에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 폐사한 가축은 닭이 3만 3,000여 마리(11농가)로 피해가 가장 크고, 돼지는 19개 농가에서 24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 지난 20일 강인규 나주시장은 추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긴급 지시하고 이를 위한 3억 1,02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 시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 사육규모, 축사여건 등을 감안해 대형 선풍기(웬), 스프링클러, 열 차단 페인트 등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출처 : 나주시





광양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효자노릇 톡톡

- 작물 생육 발달 촉진과 품질 향상 도움 돼 -

-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배양해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그동안 항생제 사용감소와 토양환경개선, 축사환경개선, 농작물 생육촉진을 목적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총 3종의 유용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 특히 철저한 군주관리와 배양액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농업환경개선 등의 큰 효과를 내며 농가로부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또 시설원예와 축산, 과수 등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률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시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774농가에 전년 대비 15% 정도가 증가한 총 28여 톤을 공급의 미생물을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400여 농가에 50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나 기술보급과 미생물배양실(☎061-797-3560)로 연락해 방문하면 개인당 연간 200L까지 무상(초과 시 유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출처 : 광양시





곡성군, 농산물 사게 하는 세일즈 스킬 교육생 모집

- 내달 10일까지 선착순 모집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달 10일까지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 사게 하는 세일즈 스킬 교육』 참가자를 20명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농가들의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소비자에게 내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으로써,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5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5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 교육내용은 보이스 기초이론 및 리딩 실기,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 찾기,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 PT, 자신의 농장과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즉흥 스피치 훈련을 시켜 최종적으로 세일즈 PT테스트와 영상을 촬영하여 농가에 맞는 스킬을 컨설팅해주는 교육으로 농가가 농장과 농산물을 홍보하여 판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727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곡성군



신안군, 폭염대비 농작물관리 및 농작업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신안군 (군수 박우량)은 여름철 연일 지속되는 폭염대비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농작업 관리로 농업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온도저하를 유도하고 규산과 가리비료를 증시하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먹노린재, 잎집무늬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을 중점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 밭작물은 고온 지속시 수정장애로 착과 불량과 낙과 발생이 우려되므로 관수실시로 토양 적습을 유지해야 하며, 짚 등으로 토양을 피복하여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며 고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저병, 역병, 진딧물 등을 철저히 방제한다.
- 과수는 생육적온 이상의 고온은 과실 호흡과다로 과실 비대를 저해하고 과실에 햇빛 데임 및 잎 가장자리가 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가지들을 잘 배치하고 적절한 관수로 원활한 뿌리 생육을 도모하고 일소 피해를 예방한다.
- 가축은 고온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크게 설치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축사지붕과 운동장에 물을 뿌리거나 그늘막을 설치하며 충분한 양의 시원한 물과 소금, 비타민 등 첨가제를 넣어준다.
- 특히, 농업인들은 폭염대비 자주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과 염분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하여야 하며,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어지럼증, 두통, 구토, 힘없음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발생 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신속히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 출처 : 신안군

8. 해외 농업정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인도 유기농 시장

- 인도연합상공회의소(ASSOCHAM)과 Ernst & Youn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유기농 식품 시장은 25%의 연평균증가율(CAGR)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400억 루피 규모에서 2020년 1,000~1,200억 루피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 인도는 현재 유기농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835천명에 이르고 유기농 제배 면적은 149만 헥타르로 세계 9위에 수준의 이지만 세계 유기농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16년 기준 1%도 미치지 못한 수준임.
- 이에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녹색혁명과 같이 정부 주도의 시장 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인도 시장의 문제점으로 유기농 농산물은 현재 신뢰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유기농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일 할 방법이 없다고 함. 한편 농가 측에서는 유기농 인증 및 감사를 받는 것은 여전히 번거롭고 3~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유기농법으로 전환하는 농부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함.
- 인도 정부는 정부가 유기농 산업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NGO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인증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함.
- 시사점으로 인도 내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유기농 식품 산업 박람회 BioFach가 2009년부터 개최 되었고 올해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 델리 Pragati Maidan에서 개최될 예정임.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새로운 천연 감미료 성분 개발

-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영양·건강·환경보호 연구기업인 DMS사는 2018년 7월 16일 ~ 7월 18일, 시카고에서 열린 IFT(Institute of Food Technology) Food Show를 통해 차세대 감미료인 『Avansya Reb(Rebaudioside) M』을 선보였는데, 이는 칼로리가 없는 안정적인 천연 감미료로 식음료 부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알려짐.
- DSM사의 설탕 줄이기 플랫폼의 디렉터인 Luiz Leite는 “국제적으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식음료 소비에 건강한 해결법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Avansya Reb M은 기존의 감미료보다 진보한 천연 감미료라고 함.
- 이는 음료와 제빵,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비싸지 않고, 맛도 좋다고 함.
- Avansya Reb M은 수년간 개발되어 왔는데, 이는 스테비올 글리코사이드(steviol glycoside) 성분을 특허기술에 의해 자연 발효시켜 액상 성분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가공한 것이라고 함.
- 설탕 줄이기는 최근 식품계의 주요 이슈로, DSM의 2017년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절반 가까운 소비자들이 설탕 섭취에 대해 3년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으며, 55%의 소비자들은 종종 또는 항상 포장의 설탕함량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식품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맛을 유지하는 설탕대체 상품들을 찾고 있다고 함.
- IFT에서는 Avansya를 요거트에 응용하여 선보였으며,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서도 훌륭한 단 맛을 내는 것을 증명했다고 함.

- Avansya Reb M은 미국에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로 인증되어, 올해 후반기에는 상품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출시하게 될 전망이다.
- 현재 개발된 천연 성분으로 만든 감미료는 스테비아(Stevia), 에리트리톨(Erythritol), 자일리톨(xylitol), 야콘시럽(Yacon Syrup) 등이 있으며, 식품 성분조사 사이트인 Dr. Axe는 천연 단맛을 내는 식품으로
- ①꿀 (1tsp, 64cal), ②스테비아 (0cal), ③대추야자 (1Medjool, 66cal) ④코코넛슈가(1tsp, 45cal), ⑤메이플시럽(1tsp, 52cal), ⑥당밀 (1tsp, 47cal), ⑦발사믹그레이크스 (1tsp, 20~40 cal), ⑧바나나퓨레 (1cup, 200cal) ⑨현미시럽 (1tsp, 55cal), ⑩과일잼 (과일에 따라 cal 다양)을 소개함.
- 시사점은 미국에서 비만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음료에서 설탕을 줄이려는 인식과 노력이 소비자들과 제조사들에게 증가하여, 설탕을 대체하면서도 양질의 단맛을 유지하고 칼로리도 줄일 수 있는 천연감미료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의 식음료제조사들은 이런 천연감미료 성분을 이용하여 건강한 맛의 상품들을 수출하고, 한국산 천연 단맛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선보이면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리라 전망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7. 3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기술적인 매도로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로 하락했다. 금주 세션에서 6% 이상 급등한 뒤 2세션 연속 하락했다. 밀 주요 생산지역의 부정적인 작황 조사 전망과 북부 다코타 지역의 작황 조사 결과, 건조한 날씨로 봄밀의 수확량이 평균이하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하락폭을 제한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1%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장중 오르내리며 혼조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했다. 이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이어졌지만 기술적인 저항과 미국 내 수요와 수출부문의 강한 수요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출수요로 인해 상승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4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대두 수출 전망 또한 밝다고 전했다. 대두박과 대두유는 가공업자들의 좋은 이익률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버섯육종교실, 30일부터 신청하세요

- 농가·종균 배양소 등 일반인 대상... 교육은 8월 28일부터 4일 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민간 버섯 육종가 양성을 위한 『2018 버섯 육종교실』 참가 신청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
- 신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http://www.nihhs.go.kr>) - 기관 소개 - 과학원 소식(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뒤, 담당 부서(버섯과, 팩스 043-871-5702 또는 전자우편 minji1228@korea.kr)로 하면 된다.
- 이번 교육은 버섯 재배 농가나 종균배양소 관계자 등 버섯 육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이며, 관공서 관계자는 제외된다.
- 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 수료 후에는 현장에서 버섯 육종이 가능한 적격자 16명을 선발한다. 교육 대상자는 8월 10일 개별 통보한다.
- 올해 버섯육종교실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충북 음성군)에서 실시한다. 해마다 1회 진행하며, 올해 11회째다.
- 교육은 버섯 육종 실전 등 이론과 포자 수집 및 조직 배양 등 실습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강사 1명이 교육생 2명을 전담해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교육할 계획이다.
- 이론 과정은 버섯 육종의 기본 원리와 국내·국외의 버섯 품종 육성의 우수 사례를 이해한다.
- 실습은 육종의 모본이 되는 원균 관리를 위한 배지 제조와 배양방법과 자실체에서 포자를 수집하고 분리한다.
- 특히, 이번 교육은 마지막 날에 4일 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우수 교육생을 선발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올 여름엔 농촌에서 더위 잊어보세요

- 휴가철에 가볼만한 농촌여행 코스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가기 좋은 농촌여행지를 소개했다.
- 이번에 소개하는 여행지는 각 지역의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을 중심으로 팜스테이 체험마을이나 가까운 지역 명소를 포함해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다.
- 농촌교육농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사업장으로, 농업과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교과 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농가맛집은 지역의 식자재와 전통 문화에 이야기를 담아 향토음식을 상품화 한 곳이다.
- 농촌여행의 코스는 지역별로 휴양, 치유, 교육, 물놀이, 체험, 미식 등 주제를 제시해 여행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 하루 이상 머물며 여유롭게 휴양과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이 가능한 농장과 마을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 농촌여행코스 자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알림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농가맛집 『꽃피는무화家』



교육농장 『청푸름농장』



청푸름농장 체험



8월, 여름휴가 떠나기 좋은 농촌여행마을 5선

-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에서 우리가족 휴가를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가족과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 여름휴가지 5군데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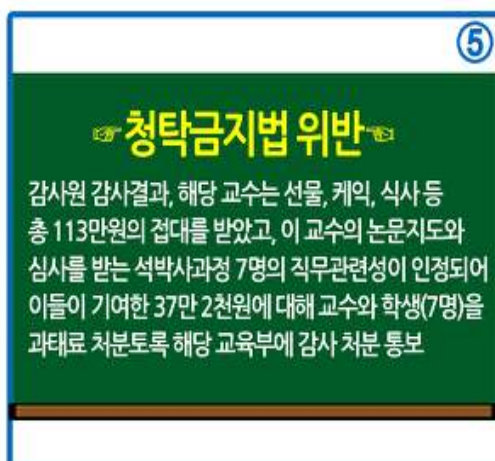
지역	마을	위치	체험	주변 관광지
경기권	부래미마을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울로 640번길 150	수영장 물놀이, 천연염색, 미니생태여행·도자기 만들기, 다육식물 심기 등	어재연 생가, 민주화 공원, 테르메덴(워터 파크) 등
강원권	누리삼마을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601-45	물고기 잡기, 매운탕 끓여 먹기, 찰옥수수 수확 및 찌막기, 수제비·도토리묵 만들기 등	소양호, 중발계곡 등
충청권	삼기조아유마을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휴양로100	수영장 물놀이, 산나물 채취, 에코백 만들기, 삼색 인절미 만들기 등	삼기저수지 둘레길, 조정약수, 좌구산 자연휴양림 등
전라권	임자만났네마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길 44	갯고랑 카약타기, 갯벌 생태 체험, 드론체험, 용난굴 트레일러 체험, 후리 그물질 체험 등	대광 해수욕장, 토굴, 조회룡기념관 등
경상권	장척힐링마을	경남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462번길 140	수영장 물놀이, 숲치유, 숲 해설, 짚라인, 자연물 공예, 목공예 등	장척계곡, 가야 테마 파크, 신어산 등

- 이번에 선정된 여행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우수 농촌여행지 1개소 씩 총 5개소로 구성됐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바다, 계곡,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농촌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마을로 선정하였다.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명확화, 농촌관광 등급제 개편 등을 통해 농촌관광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95